

5년만의 가을야구 한게임만 할수 없잖아

KIA 포스트 시즌 준비

잔여경기 이동 컨디션 저하

불펜진 관리 최대 숙제

‘호랑이 군단’의 시선이 5년 만의 가을 야구로 향해 있다. 해피 엔딩을 위해 세밀한 불펜 전략이 필요하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3일 kt 위즈와의 홈경기에서 2연승을 거두면서 5강에 한발 더 다가갔다. 5위 KIA가 남은 세 경기에서 1승을 거두거나 6위 SK가 남은 두 경기에서 1패를 기록하면 2016 정규시즌 5강이 확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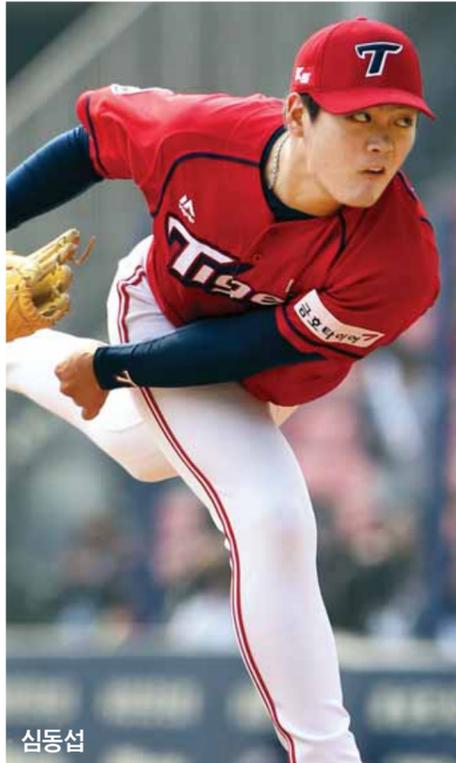
KIA가 유리한 고지에서 가을전지까지 내다보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없다. 그만큼 남은 정규시즌 그리고 포스트 시즌을 위한 벤치의 전략이 중요하다. 특히 불펜의 운영이 팀의 운명을 바꾸게 된다.

불규칙한 잔여경기 일정 탓에 강제 휴업을 하고 있는 불펜진들이 있다.

9월23일 NC원정 이후 좌완 심동섭, 베테랑 최영필·김광수, 사이드 암 박준표 등 4명의 투수가 마운드에서 자취를 감췄다. 김윤동은 9월25일 kt원정 마지막 등판이었고, 한승혁과 홍건희도 9월27일 이후 불펜에서 몸만 풀고 있다.

5강 확정과 포스트 시즌까지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KIA에게 불펜의 컨디션이 중요하다. 오랜 시간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투수들이 많은 만큼 마운드의 실전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 5강이 확정되지 않은 터라 불펜진 운영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 고민이다.

남은 일정도 머리를 복잡하게 한다. KIA는 앞서 우천으로 취소됐던 삼성과의 원정경기를 치르기 위해 4일 오후 훈련 뒤



심동섭



한승혁

대구로 향했다. 그러나 태풍도 함께 이동하면서 5일 경기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되면 강제 휴업에 들어갔던 불펜진이 긴박하게 돌아가야 한다.

5일 경기가 우천으로 또 취소될 경우 KIA는 광주로 돌아와 6일 삼성과 홈경기를 치른 뒤 7일 다시 대구로 가 경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8일에는 대전으로 이동

해 2016 정규시즌 최종전을 치러야 한다.

부담스러운 이동거리에 3연전까지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 비상 상황이다. 최종일까지 순위가 확정 안 될 경우에는 매 경기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특정 불펜진 위주로 경기를 풀아가는 ‘불펜 양극화’로 마운드 체력 소모가 심한 상태에서 외일드카드 결정전 일정에 돌입할 수도 있다.

잔여경기 세 경기 그리고 얼마나 더 일정이 주어질지 모르는 포스트 시즌, 부상이나 컨디션 난조 등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른 만큼 KIA는 전체적인 마운드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김기태 감독과 이대진 투수 코치의 선택과 전략이 올 시즌 성적표를 바꿀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76만 1440명...KIA 역대 최다관중 신기록

KIA 타이거즈가 홈 경기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새로 쓰며 올 시즌 목표 관중을 돌파했다.

지난 3일 kt 위즈와의 홈경기가 열린 챔피언스 필드에 1만134명에 찾으면서 올 시즌 누적 관중이 76만1440명이 됐다. 이와 함께 올 시즌을 앞두고 목표로 했던 75만 6000명도 돌파했다. 홈 71경기 만이다.

KIA는 올 시즌을 앞두고 지난해보다 6.5% 증가한 75만6000명 관중을 목표로 내

세웠다.

역대 최다 관중 기록도 잇달아 경신되고 있다. 지난해 71만141명으로 역대 최다 관중을 불렀던 KIA는 지난해 14일 넥센전에서 71만3475명의 누적관중을 기록, 종전 기록을 넘어섰다. 올 시즌 평균 관중 역시 1만725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1만366명(2014년)을 뛰어넘었다.

챔피언스 필드를 새 안방으로 사용한 2014년부터 해마다 관중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시즌 KIA는 꾸준히 중위권 성적을 유지하면서 팬들을 발길을 끌었다. 고품격 록 앤드 롤 프로젝트 등으로 팬 만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출범 35년째를 맞은 프로야구도 올 시즌 사상 첫 800만 관중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29일 누적 관중이 800만(802만 857명)을 넘어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중학교 야구대회

KIA 타이거즈가 광주·전남·전북지역 야구 유망주 발굴과 육성을 위해 ‘제10회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중학교 야구대회’를 개최한다. 4일 막이 오른 이번 대회는 오는 7일까지 무등경기장에서 계속되며 광주시야구협회(회장 나훈)가 주관한다. 광주(동성중 무등중 진흥중 충장중), 전남(여수중 이수중 화순중 세지중 진월중), 전북(이평중) 지역 10개 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부를 가리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

강정호 21개월만에 귀국

7일 오후 인천공항 입국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21개월 만에 한국 땅을 밟는다.

강정호의 국내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4일 “강정호가 7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 14일 피츠버그와 계약하고 고차 인천공항을 떠난 지 21개월 만의 귀국이다. 2015년 126경기에 나서 타율 0.287, 15홈런, 58타점을 기록해 메이저 리그에 연착륙한 그는 그해 9월 18일 시카고 컵스와 홈경기에서 주자 크리스 코글란의 거친 슬라이딩에 왼쪽 무릎을 다쳐 수술대에 올랐다.

강정호는 지난해 겨울 한국에 오지 않고, 미국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올해 강정호는 5월 7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에서 시즌 첫 경기를 치른 강정호는 홈런 2방을 치며 화려한 복귀 신고를 했다. 출발은 늦었지만, 만회하는 속도는 무척 빨랐다.

강정호는 올해 103경기에서 타율 0.255(318타수 81안타), 21홈런, 62타점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록한 홈런과 타점을 넘어섰고, 동시에 아시아 내야수 중 처음으로 한 시즌에 20홈런을 친 버키거로 기록됐다. 9월 첫째 주에는 개인 처음으로 내셔널리그 이후의 선수로 뽑히는 영광도 누렸다.

메이저리그에서 두 시즌 동안 치열하게 싸운 강정호는 한국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LPGA ‘메이저퀸’ 전인지

국내 메이저

사냥 나선다

하이트진로챔피언십 출전...고진영·장수연 등과 일전

‘메이저퀸’ 전인지(하이트진로·사진)가 국내 무대 메이저대회 점수에 나선다.

전인지는 오는 6일부터 나흘 동안 경기도 여주시 불루헤런(파72)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하이트진로챔피언십에 출전한다.

하이트진로챔피언십은 KLPGA투어 시즌 세 번째 메이저대회다. 전인지는 유난히 메이저대회에서 성적이 좋다. LPGA투어에서 두 차례 우승을 모두 메이저대회에서 올렸다.

일본에서도 메이저대회에서만 2승을 일궈냈다. 국내에서도 전인지는 프로 첫 우승을 메이저대회인 한국여자오픈에서 달성했고 지난해에는 5차례 우승 가운데 2승을 메이저대회에서 따냈다. 전인지는 그러나 올해 두차례 메이저대회 타이틀 방어전을 빈손으로 마쳤다. US여자오픈에서는 컷을 통과하지 못했고 일

본여자오픈은 2타가 모자란 4위에 머물렀다.

국내 1인자로 우뚝 선 박성현(넵스)은 휴식을 선택해 출전하지 않지만 국내에서 3승을 올린 고진영(넵스)과 2승을 따낸 장수연(롯데), 배선우(삼전리) 등 상위 랭커들이 빼지없이 출전한다. 앞서 열린 OK 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에서 정상에 오른 김민선(CJ 오소프)도 상승세를 타고 2연승에 도전한다.

전인지와 함께 하이트진로의 후원을 받는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 강호 전미정과 김하늘의 출전도 변수다. JLPGA투어에서 상급랭킹 5위를 달리고 있는 김하늘은 2011년 이 대회 정상에 오른 바 있다. 일본 상급랭킹 9위 전미정은 일본에서만 23승을 올린 베테랑이다.

전인지는 6일 오전 11시50분 고진영, 김민선과 1라운드를 시작한다. /연합뉴스

후보 5명...통합 대한체육회장 오늘 선출

제40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엘리트 체육을 권장하는 구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 주무단체였던 국민생활체육회가 올해 3월 통합한 이후 사실상 첫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다.

지난 3월 체육 단체 통합이 마무리됐지만 8월 리우 올림픽이 임박했다는 등의 이유로 새 회장 선출은 올림픽 이후로 미뤄졌고 그동안 김정행 구 대한체육회장과 강영중 국민생활체육회장이 공동 통합체육회장을 맡아왔다.

통합체육회는 올해 예산 총액이 4149억 원에 이르고 이제부터는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모두 담당하게 돼 누가 ‘체육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될지 그 어느 때보다 체육계 관심이 뜨겁다. 특히 이

번에 선출되는 체육회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까지 회장직을 맡게 된다. 임기는 다음 회장 선거가 열리는 2021년 2월까지다.

후보로는 모두 5명이 출마했다. 장정수(65)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 이에리사(62) 전 국회의원, 이기흥(61) 전 대한수영연맹 회장, 장호성(61) 단국대 총장, 전병관(61) 경희대 교수(이상 후보 기호순)가 선거인단의 표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2013년 2월에 열린 직전 선거보다 선거인단 규모는 27배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선거인단 구성을 통한 회장 선출로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했고 선거 참여대상과 지역단체 참여를 확대해 회장 선출의 민주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연합뉴스



이 앙다물고...힘찬 리턴 샷 크리스티나 므라데노비치(프랑스)가 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차이나 오픈 테니스 여자 단식 경기에서 매디슨 키스(미국)에게 리턴 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